



- **경제 이슈** :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 축소  
유로존 민간경기 회복세 지속
- **경영 노트** : 혁신의 원천으로 작용하는 분노
- **사회 트렌드** : 미래사회에 대한 국민 의식  
근층산업, 황금알 낳는 시장
- **저널 브리프** : 자기 과전형 리더를 위한 조언
- **금주의 도서** :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
- **洗心錄** : 아무리 화가 나도 하지 말아야 할 10가지

## □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 축소

- 2014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통계청)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는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으나, 임금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하락
  - 비정규직 근로자 추이 : 2014년 3월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591만 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만 9천 명(3.1%) 증가하였으나, 임금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1%로 0.2%p 하락
  - 산업별 비정규직 근로자 추이 : 도소매·음식숙박업(7만 명, 6.6%), 건설업(3만 6천 명, 5.7%),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만 1천 명, 1.1%) 순으로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7천 명, -7.8%)은 감소
  -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여건 : 평균 근속기간은 2년 7개월로 2개월 증가하였고, 주당 평균취업시간은 37.6시간으로 0.6시간 감소
-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등에 따라 고용확장세와 함께 비정규직의 근로여건도 개선되는 모습

## □ 유로존 민간경기 회복세 지속

- 유로존은 5월 소비자신뢰지수와 서비스업 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민간경기 회복세가 지속
  - 민간 소비 : 유로존의 소매판매가 2014년 1분기에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세를 보인 가운데, 지난 21일 유럽연합위원회가 발표한 5월 소비자신뢰지수가 -7.1을 기록하여 4월(-8.6)이 비해 크게 개선(2007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 제조업 경기 : 유로존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sup>1)</sup>는 5월 52.5를 기록해 4월(53.4)보다 낮아져 제조업 경기가 다소 부진
  - 서비스업 경기 : 반면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는 5월 53.5로 4월(53.1)보다 개선되면서 지난 2011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 유로존의 경기지표가 강보합세를 이어가면서 유로존의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높은 실업률과 디플레이션 발생 우려 등이 불안요인으로 존재

---

1) 구매관리자지수(Purchasing Managers' Index, PMI)는 기업의 신규주문, 생산 및 출하, 재고, 고용 등을 조사하여 만든 지표로 일반적으로 기준선인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50보다 낮으면 경기 수축을 의미함.

□ 혁신의 원천으로 작용하는 분노2)

- 일반적으로 분노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치부되지만, 긍정적으로 활용하면 혁신의 원천이 될 수도 있음
  - 스티브 잡스는 일일이 명령어를 입력해야 하는 불편한 개인용 컴퓨터에 분노하여 그 래픽 인터페이스를 장착한 매킨토시를 개발
  - 또한 시장에 나와 있는 복잡하고 형편없는 휴대폰에 분노하여 휴대폰의 패러다임을 바꾼 아이폰을 개발
  
- 분노는 문제를 발견하게 만들고, 높은 목표와 끈기를 지니도록 만들며, 차별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

< 혁신의 원천으로 작용하는 분노 >

	내 용
문제 발견을 쉽게 만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떤 사안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음</li> <li>• 복수심이나 적개심 같은 극단적인 분노의 감정은 합리적인 사고를 방해하고, 특정 대상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음</li> <li>• 그러나 분노는 두뇌를 활성화시켜 고정관념이나 상식에서 벗어나 다른 것을 보게 만드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음</li> </ul>
높은 목표와 끈기를 지니게 만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왜 이것밖에 못해”라는 불만은 “나라면 더 잘 할 텐데”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음</li> <li>• 남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를 발견했다면 당연히 그 사안에 대한 목표 수준이 높고 구체적이라는 것을 의미</li> <li>• 특히 지적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모욕이나 인신공격을 당하면 자존심에 자극을 받아 목표 수준을 높이고 노력을 기울여 문제에 더욱 몰입</li> </ul>
차별화로 이어질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노의 감정은 “나라면 더 잘 할 텐데”라는 생각뿐만 아니라 “나라면 다르게 할 텐데”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기도 함</li> <li>• 애플은 치열한 경쟁보다 차별화로 새로운 길을 개척했고, 주력 제품이 성숙기에 접어들면 후발업체와 싸우지 않고 혁신을 통해 성장을 지속</li> <li>• 아이맥이 판매 정체에 부딪혔을 때 아이팟으로 돌파했고, 아이팟 매출이 줄어들자 아이폰으로 성장을 지속했으며, 아이폰의 성장률이 하락하자 아이패드를 출시하여 도약</li> </ul>

2) ‘분노의 화신 잡스, 그 에너지를 혁신에 썼다’(동아비즈니스리뷰, 2014.05.21)를 요약 정리함.

□ 미래사회에 대한 국민 의식<sup>3)</sup>

- 우리나라 국민의 85% 이상이 과학기술 발전과 함께 미래에 감시사회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미래 기술발전이 가져올 부작용을 묻는 질문에 대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89.4%)가 가장 많이 꼽혔음
  - 반면 미래 기술 발전에 따른 혜택에 대해서는 생활의 편리성(94.3%)이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고, 여가시간의 증가(84.2%), 새로운 에너지원의 발견(83.0%) 등에 대해서도 높은 기대를 보였으나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문제 해결(41.5%)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저조
- 미래사회에서 우선시되는 가치로는 '안전한 생활환경'(26.5%)이 가장 많이 꼽힘
  - 여가시간(20.4%)과 건강(20.3%)이 그 뒤를 이었고, 소득(15.0%)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에 머물렀음
  - 미래사회에는 에너지 자원을 에워싼 국가 간 분쟁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92.7%)됐고, 가장 유망한 사업 분야로는 대체 에너지 판매(53.1%)가 꼽혔음

□ 곤충산업, 황금알 낳는 시장<sup>4)</sup>

- 곤충은 양봉·양잠과 일부 식약품 제조에 국한되어 사용되었으나, 최근 곤충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면서 곤충산업은 '황금알을 낳는 시장'으로 급부상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곤충산업 시장 규모는 2009년 1,570억 원에서 2015년 2,980억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
  - 각 지역의 곤충 축제가 갈수록 활성화하는데다 정부가 곤충산업육성법을 제정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어서임
  - 곤충의 쓰임새는 종류만큼이나 다양. 사슴벌레는 학습·애완용, 무당벌레는 병해충 제거용, 나비·반딧불이는 축제용, 동애등에·거머리는 사료·의약품용으로 활용
- 또한 곤충이 함유하고 있는 영양 가치는 육류 못지않다고 함
  - 상당수 곤충은 단백질 함유량이 60%로 소고기(55%), 고등어(19%)보다 높음

---

3) '한국인 85%, 미래 감시사회 우려'(서울경제, 2014.5.26)를 요약 정리함.

4) '곤충산업, 황금알을 낳는 시장 급부상'(헤럴드경제, 2014.5.26)을 요약 정리함.

□ 자기 과신형 리더를 위한 조언<sup>5)</sup>

○ 리더가 자기 과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한 조언 3가지를 소개

- 리더에게 자신감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지만, 만약 자신감이 지나쳐 리더가 자기 과신에 빠지면 성공과의 거리는 멀어짐
- 자기 과신이 리더의 판단력에 악영향을 끼쳐 수많은 위험 요인과 급변하는 현실 상황 및 실패의 징후 등을 놓치게 만들기 때문

① 실패를 가정한 대비책 마련 : ‘다 잘 될 거야’ 보다 ‘내 결정이 잘못됐다’를 전제

- 자기 과신에 빠진 리더가 장밋빛 미래에 눈이 멀면 위험 요인을 미리 보지 못하여 실제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휘청거리기 쉬움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리더가 놓치기 쉬운 위험 요인들을 팀원들과 함께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
- 예를 들면 신규 업무 시작 전 팀원들에게 “만약 6개월 후 이번 프로젝트가 실패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를 미리 묻고 그 대응방법을 생각해보는 ‘프리모템 (Premortem) 테스트’를 활용할 필요

② 철저한 현실 분석 : ‘내 말대로 하면 돼’가 아닌 ‘상황이 어떻게 변했지?’를 생각

- 자기 과신에 빠진 리더들은 자신이 늘 해오던 방식에 대해 지나친 확신과 믿음을 가진 경우가 많음
- 하지만 요즘처럼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는 성공 규칙이 똑같은 패턴으로 적용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리더 스스로 자신이 해오던 방식에 대한 확신을 경계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
- 예를 들면 정치(Politics), 경제(Economy), 사회(Society), 기술(Technology)를 중심으로 한 ‘PEST 분석’을 통해 사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분석

③ 탈출 기준 마련 : ‘못 먹어도 고(go)’가 아니라 ‘이 선에서 손 털고 나오기’를 전제

- 자기 확신에 빠진 리더들은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증거가 나타나도 애초 결정을 수정하지 않거나 이를 만회하기 위한 투자를 감행해 결국 큰 손해가 발생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리더는 사업 및 프로젝트 수행 전 실패의 기준선을 미리 정해 최악의 상황을 피할 필요
- 구체적으로 ‘3년 후 최소 이익 20억 원에 도달하지 못하면 해당 사업 철수’와 같은 탈출 기준(Exit Rule)을 미리 정하며 이 기준을 바탕으로 실패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은 해당 업무와 무관한 사람에게 부여하여 판단의 객관성을 확보

---

5) ‘「나만 믿어!」 자기 과신 病 리더 치료법 세 가지’(조선비즈, 2014.05.15)참조.

□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sup>6)</sup>

제롬 글렌 : 미래학자, 밀레니엄 프로젝트/세계미래연구기구협의회 회장, 유엔대학교 미국위원회 이사  
오스틴 굴스비 : 시카고 경영대학원 교수, FRB 경제자문위원, 전 백악관 경제자문회의의 의장  
대니얼 엘트먼 : 뉴욕대 스톤스쿨 교수, 국제 문제 저널리스트, 전 이코노미스트 기자

- 세계 석학들이 진단한 5년 후 미래 보고서. 자본주의의 한계에 맞서 새롭게 등장한 대안적 경제 질서를 살펴보고,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를 전망
- 글로벌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핵심 동인(글로벌 헤게모니, 기축통화, 인구구조와 소비시장, 중국 등 신흥국, 에너지 및 자원, 신기술)들을 선정하고, 파급 효과를 예측
- 미래를 전망하는 총 5개의 프리즘
  1.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러시아(G8)와 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프론티어(Frontier) 12개 국가(F12)가 글로벌 시장의 주도적 소비자층으로 부상한다.
  2. 가치사슬의 혁명, 갑을 생태계가 을갑 생태계로 뒤바뀐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무장한 벤처기업이나 이업종 히든챔피언을 융합한 기업이 지배자로 등극한다.
  3. 정글 자본주의는 한계에 다다르고, 시장 기능을 받아들이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투자가 각광받는다.
  4. 언젠든 유로존 해체 위기는 재연될 수 있다. 유럽발 금융위기로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가치나 주가가 급락할 것이다.
  5. 한국은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과정에서 중국-일본-인도-ASEAN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중재자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 향후 5년간 글로벌 경제는 한마디로 '고난의 행군(muddling through)'.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비시장 위축에 따른 공급과잉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며, 인구구조 및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과 재편이 불가피

---

6) 제롬 글렌, 오스틴 굴스비 등 세계적 석학 50인 지음, 머니투데이 특별취재팀 펴냄,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 비즈니스북스, 2013.11.

## □ 아무리 화가 나도 하지 말아야 할 10가지

거의 모든 세상의 일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린다. 오늘 하루를 봐도 생각보다 아침날씨가 쌀쌀하기도 하고, 지하철이 어제보다 늦게 오기도 하고, 업무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도 하고, 점심때 동료들과의 대화가 기대했던 것보다 덜 재미있을 수 있고, 큰마음 먹고 산 비싼 커피가 가격에 비해 그저 그럴 수 있다. 물론 여기에 상사로부터의 지적을 추가하면 세상은 나를 외면하는 것을 넘어 조롱하면서 돌아가는 듯 보이기까지 한다.

이런 상황에 대해 우리 각자는 정신적인 탈출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화(火)를 내는 것으로 이를 통해 높아지는 세상에 대한 불쾌감을 낮춰 평정을 찾게 한다. 그런데 문제는 화가 단순하게 화로 끝나는 것이 아닐 때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5월 5일) 미국의 인터넷 신문인 허핑턴 포스트(Huffington Post)가 “아무리 화가 나도 하지 말아야 할 10가지(10 Things You Should Never Do When You’re Angry)”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건강칼럼은 대비책을 담고 있다.

1. 분노 속에서 잠자리에 들지 말 것.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잠은 부정적인 감정을 보존하거나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깨어있으면서 화를 삭이는 것이 나쁜 기억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2. 화가 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말 것. 연구들은 화가 난 운전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위험을 무릅쓰고 그만큼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3. 화를 밖으로 쏟아내지 말 것. 화가 나면 주변의 자기물건에 대해 이를 물리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베개를 가지고 화풀이를 하면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높아질 뿐만 아니라 장래에 행동을 더욱 공격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한다.
4. 먹는 것을 통해 화를 다스리지 말 것. 화난 상태에서 먹을 것을 찾게 될 경우 사람들은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 같은 채소보다는 고당도, 고지방, 고 탄수화물의 음식물에 손이 쉽게 간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육체는 위기상황으로 인식해 소화마저 원활화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

5. 논쟁을 계속 이어나가지 말 것. 화를 불러일으킨 논쟁을 계속할 경우 나중에 후회할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논쟁을 계속해야 한다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마음과 몸을 가다듬고 나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의도한 대로 더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다.
6. 페이스 북과 같은 SNS를 통해 화가 난 이유와 내용을 알리지 말 것. 화가 났을 때 이를 친구나 가족 혹은 그냥 아는 사람들에게 SNS를 통해 떠벌인다면 나중에 본인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7. 화가 풀리기 전에는 상대방에게 이메일을 쓰지 말 것. 화가 난 상태에서 보낸 이메일은 결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굳이 써서 보내고 싶다면 먼저 문서파일로 작성해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당연히 그 만큼 후회할 가능성은 줄어든다.
8. 화가 난 상태에서 술을 찾지 말 것. 화를 풀기 위해 술을 마시는 것은 종종 그 역효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술은 충동조절 기능을 약화시켜 화를 행동으로 쉽게 표출하도록 만든다. 당연히 나중에 후회할 일을 저지르기가 더 쉬워진다.
9. 화가 났다고 해서 혈압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 것. 화를 표출한 다음 두 시간 동안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가능성이 각각 5배와 3배까지 높아진다고 한다. 운동, 명상 등을 통해 화를 다스리는 것이 장수와 건강한 삶에 큰 도움이 된다.
10. 화를 곱씹는 것을 피할 것. 상대가 어떻게 불공평했고 상처를 주었는지를 자꾸 생각한다고 해서 현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나쁜 목적으로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은 사악함으로 이르는 길이다.**

- 레오 톨스토이(1828-1910): 러시아의 소설가